

주요소식

청렴 방방곡곡 본청

경남교육청, 2022년 청렴마라톤 캠페인 개최

18일 창원스포츠파크서 캠페인 개최로 시민들과 청렴 공감대 형성 “깨끗·공정한 공직사회 실현은 자부심·품격” 강조

경남교육청은 지난 18일, 창원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제18회 창원야철 마라톤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렴마라톤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청렴마라톤 캠페인은 청명한 가을하늘의 햇살을 받으며 창원의 사똥팔달한 도심과 공단을 시민들과 함께 달리며, 건강과 더불어, 청렴한 문화와 청렴 실천 의지를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이민재 감사관은 “청렴한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행사를 마라톤대회에서 시민들과 함께 개최할 수 있어 보람되고 의미있는 하루가 되었다.”고 하면서,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실현은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고 품격임을 널리 알리는 청렴 홍보활동을 앞으로도 지속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렴 방방곡곡 교육지원청



양산교육지원청, 양산교육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교육가족들의 청렴에 대한 아이디어와 실천 의지를 표현한 작품들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



의령교육지원청, 계약서류! 클릭 한번으로 해결하는 '한번e[한번에]'

한번의 입력으로 각종 서류가 모두 작성·출력되는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하여 계약업체 만족도 UP!



산청교육지원청, 지역 축제와 함께하는 청렴 홍보 버스 운영

지역민 및 방문객분들에게 청렴활동을 홍보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 문화를 알리는 계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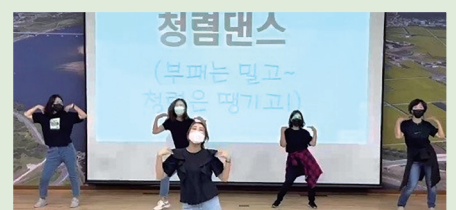
한천교육지원청, 청렴한 리더! 새롭게 바뀐 공직자 청렴 서약!

부패관행 차단을 위한 기관장들의 청렴 실천 의지를 표명



고성교육지원청, 고성공공엑스포 청렴 캠페인 실시

청렴한 고성교육을 전파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청렴 문화 정착



하동교육지원청, 청렴댄스동아리와 함께하는 10월 월례회 실시

댄스로 소통하며 건강하고 유쾌한 조직문화를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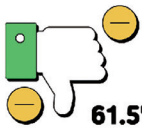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법 알아보기

출처: 국민권익위원회(동영상 탑재: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 누리집>자료집>청렴자료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알아보기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가로막는 요인은?



61.5%

신고로 인한 불이익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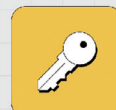
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12.9%

조직 차원의
인식 및 시스템 결여

이러한 이유로 직장 내부의 불법행위를
선뜻 신고하지 못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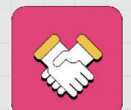
비밀보장



신분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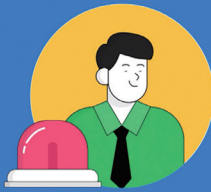


신변보호



책임감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제도가 있으니 안심하세요.



신고자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신고를 이유로 징계·해고 등 불이익을 받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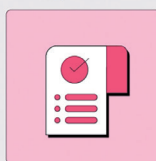
신변보호



신고로 인해 신변의 위험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고,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라도 책임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당신이 사회를 지킬 때, 법은 당신을 지킵니다.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청림 칼럼

함께 살아가는 세상

‘유대인의 한마디’라는 책에서는 고대부터 유대인들은 말을 “화살”에 비유한다고 한다. 왜 칼이나 창이 아니라 굳이 화살일까요?

그것은 칼이나 창은 언제라도 다시 거두어들일 수 있지만 화살은 한번 쏘면 중간에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말도 한 번 내뱉은 말은 그것이 실수거나 잘못 의도된 것이라 해도 이미 주워 담을 수가 없다. 나중에 실수였다고 사과한들 상대방의 가슴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오랫동안 흔적으로 남아 있게 된다.

이렇게 강력한 위력을 가진 나의 화살은 오늘도 무수한 사람들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 한자의 “말씀언”자를 보면 가로획 4개와 “입구”자로 이루어져 있다. 네 번을 듣고 한 번을 신중하게 말하라는 옛 선인들의 지혜가 그 글자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한다.



반대로, 화살이 날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대신 날아오는 화살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필요도 있다. 밤송이를 맨손으로 까려면 손을 다치게 된다. 밤송이를 까지 않으면 손은 다치지 않겠지만 영원히 밤은 맛볼 수가 없다. 이때 고무장갑을 끼면 덜 다치게 된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과 마주치며 생활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두꺼운 장갑이 필요하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장갑은 누군가가 대신 끼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만이 내 마음의 장갑을 낄 수 있다.

청림감사담당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딘스테어(85세 미국 어노 노인)



인생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썼으며,
긴장하고, 매사 심각하게 지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 싫어하는 콩 요리는 많이 먹고,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덜 먹었다.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실제 상황에 부딪혀 보지 못했다.

남에게 보이는 삶에 충실하다 보니 하고 싶은 여행도,
석양을 구경하는 일도, 산에 가는 일도,
강물에서 수영하는 일도 맘껏 하지 못했다.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내가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초봄부터 신발을 벗어 던지고 늦가을까지 맨발로 지내리라.
춤추는 장소에도 자주 나가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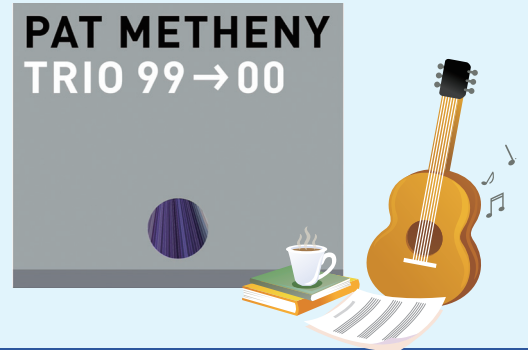
회전목마도 자주 타리라. 데이지꽃도 많이 꺾으리라.



청림한 당신에게 드리는 음악선물

세계 최고의 기타연주를 들려드립니다.

PAT METHENY
TRIO 99→00



YouTube

Pat Metheny | **Travels**

1983년에 발매된 'Travels' 앨범 속 곡 Travels는 이 앨범에서 대표 곡으로 고향에 대한 향수와 긴 여정의 노곤함을 담은 목가적인 기타 연주가 팻 메스니의 여행자적 이미지의 정수를 느끼게 해줍니다.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가득 찬 10월 되시길 바랍니다.